

경매 부진...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 지방 광역시 '최저'

한전KDN, 산업부 장관 표창
디지털 전환·시활용 촉진 포상

유일하게 80%대 못넘어
전남 낙찰률 다시 20%대
부동산 침체 장기화 여파

광주·전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 불
어닥친 부동산 침체 여파가 장기화 되고
있다.

지난달 광주의 낙찰가율은 지방 5대 광
역시(부산·대구·대전·광주·울산) 중 유

일하게 80% 선을 넘지 못했고, 전남은 낙
찰률이 3개월 만에 또 다시 20% 선으로
주저앉았다.

4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
표한 '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'를 분
석한 결과,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진행건
수는 92건으로 이중 34건이 낙찰, 37.0%

의 낙찰률을 기록했다.

낙찰가율은 79.6%이며, 평균 응찰자
수는 8.6명으로 집계됐다.

전월(75.6%)에 비해 낙찰가율은
4.0%p 상승했지만, 지방 5대 광역시(부

산 80.7%, 대구 82.1%, 대전 80.2%, 울
산 85.7%)와 비교해보면 광주는 유일하
게 80% 선을 넘지 못했다.

전남의 낙찰가율은 7월 78.5%에서 8월
84.0%로 5.5%p 상승했다.

진행건수는 135건, 이중 38건이 낙찰돼
28.1%의 낙찰률을 기록했다. 평균 응찰
자 수는 3.4명으로 집계됐다.

전남의 낙찰률은 지난 5월 22.6%를 기
록한 이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20% 선으
로 떨어졌다.

업계에서는 양 지역의 낙찰가율 상승을

당장 아파트 경매시장 회복세로 전망하기
어렵다는 입장이다.

경매 진행건수는 쏟아지고 있지만 낙
찰률은 20~30% 선에 그치고 있어서
다.

광주만 보더라도 아파트 경매 진행건
수는 지난해 11월(124건)부터 4개월
(12월 103건, 1월 114건, 2월 153건) 간
100건 이상이 유지됐고, 최근 4개월
(5월 95건, 6월 97건, 7월 96건) 역시
100건에 육박하는 물량이 지속되고 있
다.

하지만 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
인 낙찰률은 지난 4월(4월 35.8%→5월
38.9%→6월 39.2%→7월 35.4%→8월
37.0%)부터 계속해 30% 선이다.

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"낙찰가
율이 반짝 상승한 것으로 광주·전남 아파
트 경매시장의 회복을 예측하기에는 무리
가 있다"며 "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
지고, 낙찰률이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
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"고 말했
다.

송대웅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광주은행, 우수기업 임직원 맞춤 대출

서울보증보험 협약...10년까지 최대 5000만원

광주은행(은행장 고병일)은 지역
기반 우수기업에 임직원과 공무직 근
로자를 위한 'KJB우수기업임직원대
출'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.

이번 상품은 서울보증보험(SGI) 및
우수기업과 협약을 통해 마련된 것으
로, 협약이 체결된 우수 기업체에 근
무하는 임직원과 공무원연금을 받지
않는 공무직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
다.

대출 한도는 1인당 100만원부터 최
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, 1년 단위
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. 또

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중도
상환이 가능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
다.

금리는 전월 카드사용 실적 50만원
이상을 충족할 경우 연 4.04%p까지
적용 가능하다. (9월 1일 기준) 대출
신청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
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.

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
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
(www.kjbank.com), 광주은행
고객센터(1600-4000)를 통해 확인 가
능하다.

정현아 기자 aura@



롯데 광주점 "새 골프웨어 입고 굿샷하세요"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골프의 계절인 가을을 앞두고 5일부터 11일까지 9층 행사장과 6층 본매장에서 '골프 페어' 행사를 진행한다.

농협 대출 연체금 17조8000억 '사상 최대'

6개월간 3조5000억 ↑... 전남 1조900억·광주 3441억

농협 상호금융 대출 연체금이 17조원을
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 불과
반년 만에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, 전
국 곳곳에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김선교 의원(국민의힘, 경기 여주시·양
평군)이 농협중앙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
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농협 대출 연체
금은 총 17조8409억원으로 집계됐다. 지
난해 말(14조3466억원)보다 3조4943억
원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
다.

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. 올해 6월
농협 전체 대출 연체율은 4.88%로, 지난
해 같은 시점(3.81%)보다 1.07%p 뛰어
다. 2021년 0.88% 이후 5년 연속 오름세
다.

지역별로는 대구가 연체율 7.12%로 전
국에서 가장 높았고, 이어 경남
(6.61%), 충남(6.45%), 충북
(6.11%), 부산(5.84%), 경북
(5.77%) 순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.
반년 동안 연체율 상승폭은 울산이
1.36%p로 가장 컸고, 대구(1.13%p), 전

남(1.11%p), 충남(1.02%p) 등이 뒤를
이겼다.

광주·전남도 부실 확대가 뚜렷하다. 전
남의 연체금은 1조900억원으로 지난해
말(8125억원) 대비 2775억원 늘었다. 연
체율도 4.74%로, 상승폭이 전국 3위였
다. 광주는 연체금이 3441억원으로 272
억원 증가했고, 연체율은 4.20%를 기록
했다.

연체 증가액은 경기도 8839억원으로
전국에서 가장 컸으며, 경남(3905억원),
경북(3492억원), 충남(3247억원), 서울
(2874억원), 전남(2775억원) 순으로 뒤
를 이었다.

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목포원에농협, '치료비안심해2보험' 가입

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최근 목포원
에농협 본점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내 '치
료비안심해2NH건강보험' 1호 가입행사
를 가졌다.

이번 행사에는 고평훈 목포원에농협 조
합장이 직접 가입자로 참여했다.

'치료비안심해2NH건강보험'은 100세
까지 암 치료 보험금을 보장하며, 최초 암
진단 이후 매년 1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
설계됐다. 특히 재발·전이·타발암 발생
시에도 동일한 보장을 제공해 장기 치료
과정에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
있도록 했다.

또한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 등 병원
등급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(급여·비급여)



여)에 따라 특약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
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장이 가능하다.
항암 중임자 방사선 치료 시에는 1구좌당
최대 5000만원을 보장해 고액 치료에도
대비할 수 있다.

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

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(광주)
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

건강검진
어디서 받을까?

검진은 의료기관에서

예약문의 062)363-4040

http://gwangju.kahp.or.kr



심의번호
220603-중-139779